

17세기초 조선봉건왕조의 동북방진무책과 그 제한성

오 순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력사적인 사건과 사실을 통하여 경험과 교훈을 잘 찾아야 합니다. 력사에는 교훈적인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525페이지)

력사에는 교훈적인 사건과 사실들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거의나 알려지지 않았던 17세기초 조선봉건왕조의 동북변경에서 우리 나라의 관할밑에 있던 로토녀진과 홀라온녀진을 진무(鎭撫—군사적대응과 회유를 동반하는 정책)하는 과정에 있었던 력사적사실들도 그 실례의 하나이다.

16세기말에 벌어진 임진조국전쟁(1592—1598년)은 조선봉건왕조의 국력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6진에 붙어살던 녀진들은 조선봉건왕조의 통제에서 벗어나보려고 획책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이에 대하여 군사적대응과 회유의 방법으로 그들의 배반행위를 다스리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당시 조선봉건왕조가 동북변경의 안정을 위하여 취하였던 대응책들을 고증하고 그것이 가지는 제한성과 교훈에 대하여 해명해보려고 한다.

조선봉건왕조는 동북변경의 안정을 위하여 군사적대응과 회유라는 양면책을 취하였다.

동북변경안정과 관련하여 조선봉건왕조가 취한 조치는 우선 군사적대응이었다.

15세기 초중엽 압록강, 두만강연안에 4군6진이 설치되고 국경방비가 강화됨으로써 녀진의 침입을 막고 국토완정을 위한 투쟁에서 일정한 전진이 이룩되었다. 그러나 17세기초에 들어서면서 녀진인들의 배반행위가 나타났다.

임진조국전쟁직후 6진지역의 녀진족들이 배신하게 된 주되는 요인은 한마디로 임진조국전쟁을 전후하여 조선봉건왕조의 국력이 쇠약해진것과 관련되어있었다. 이에 대하여 비변사는 봉건정부에 《임진란을 겪은 후 녀진족들이 6진의 군세가 외롭고 약한것을 보고 경멸의 뜻을 보이면서 배반하였는데 로토가 먼저 배반하고 아당개가 뒤이어 배반하여 정부의 관할하에 있는 6진지방의 여러 녀진족들을 공격한다.》*고 보고하였다.

* 《선조실록》 권169 37년 정월 신해

이미 로토녀진의 공격을 받던 명간로녀진도 우리 나라를 배반하고 로토녀진에 가불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조선봉건왕조는 로토녀진의 배신행위를 그저 스쳐보낼수 없었다. 그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로토녀진의 배반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명간로녀진의 경우와 같이 다른 녀진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6진지방에서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봉건왕조는 로토녀진의 처리문제를 놓고 두파로 갈라져있었다. 한파는

로토녀진을 군사적으로 눌러놓을것을, 다른 한파는 군사적대응을 철회할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군사적대응책을 제일 강경하게 주장한 사람은 함경도 순찰사 윤승훈이었는데 그는 15개 조항을 들어 그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선조실록》 권115 32년 7월 갑인

그러나 원정준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있은것과 당시의 약해진 국력을 고려하여 정벌을 철회하고 방어에 힘쓰자는 반대의견들이 우세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국왕 선조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해를 넘긴 논의끝에 출병날자는 마침내 1600년 4월 14일로 락착되고 원정군은 3개 부대로 편성되었다. 총지휘자로는 함경도 병사 리수일이 되었고 원정군은 길주이북의 군사 3 000명으로 편성되었다.

14일부터 출발을 개시한 원정군은 곧바로 로토녀진부락에 쳐들어가 그를 짓밟개버렸다. 원정군은 정벌과정에 1 000여채의 집들을 소각하고 각종 물품들을 로획하였으며 100명이상*을 죽이고 1명을 사로잡는 전과를 거두었다.

* 《선조실록》 권125 33년 5월 경술

※ 《북로기략》이나 《북관지》에는 500여명을 죽인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수자가 더 정확하다고 본다.

당시의 원정을 계기로 조선에서 떨어져나가려던 로토녀진가까이에 살고있던 녀진인들 특히 조선봉건왕조에 등을 돌려댔던 녀진인들이 다시 우리 나라에 붙으려고 한것으로 보면 이 원정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수 있다.

조선봉건왕조는 홀라온녀진의 침입에 대하여서도 군사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1601년경부터 로토녀진의 침입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반면에 홀라온녀진과 건주위녀진의 우리 나라의 변경에 대한 침입기도가 점차 로골화되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관할 밑에 있던 녀진부락들을 자기 수중에 더 많이 끌어들여 세력을 확장하려는데 있었다.

홀라온녀진은 1603년 8월 14일 종성을 공격하여 남녀 1 000여명과 소, 말 500여필을 끌어갔으며 부락들을 불살라버렸다.*

* 《선조실록》 권166 36년 9월 갑인, 병진, 《선조수정실록》 권37 36년 8월 병오

홀라온녀진의 략탈행위에 로토녀진과 울호녀진 등 여러 녀진부족들이 합세하였다.

홀라온녀진은 그해 10월 14일 온성관하의 여러 녀진부락을, 15일에는 하줄이의 지휘 밑에 경원의 7개 부락 등을 공격하여 살인과 방화, 략탈을 감행하였다. 1605년 3월 15일 새벽에는 북도의 거진인 동관보를 습격하였다. 이때 놈들은 종성부를 치기로 했다가 력량이 부족하여 방향을 바꾸어 동관보를 기습했다고 한다.

조선봉건왕조는 동관보강화조치를 취하는 한편 녀진침략자들에 대한 군사적대응책을 강구하였다. 일부 관리들이 반대하였지만 조선봉건왕조는 함경감사 서성과 병사 김종득이 합의하여 제기한 홀라온녀진의 주둔지인 건퇴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승인하였다.

3 000여명으로 구성된 원정군은 1605년 5월 6일 일제히 두만강을 건너 건퇴에 주둔한 홀라온녀진을 기습공격하였다. 비때문에 출발기일이 늦어지고 산길로 우회하다보니 극

도로 피로한데다가 놈들의 매복에 걸려 수세에 몰렸던 원정군은 인차 대오를 수습하여 놈들을 물리쳤다. 이 싸움에서 우후 성우길을 비롯한 장병들은 용맹을 발휘하여 적지 않은 적들을 소멸하였다.*

* 《선조실록》 권186 38년 4월 경술, 권187 38년 5월 임진, 을미, 권188 38년 6월 을묘

원정은 녀진 침략자들의 흉계를 간파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공격한 전술적착오와 원정군에 가담했던 종성지방의 변호 탁두 등의 배신행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놈들의 그 어떤 침입시도에 대하여서도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조선봉건왕조의 대녀진 자세를 보여주었다.

조선봉건왕조는 로토녀진과 홀라온녀진에 대한 군사적정벌과 함께 회유책도 실시하였다.

로토녀진에 대한 공격때 로토에 붙었던 변호들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깊은 산골짜기로 도망치는것으로 위기를 모면한 로토녀진은 당시 녀진족내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누르하치에게 가붙어 고립된 형세를 역전시켜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부리고개와 보을하보 등 녀진부락들을 련이어 공격하여 만행을 저질렀다.

조선봉건왕조는 로토녀진에 대한 군사적공세가 별로 효력을 보지 못한 조건에서 차라리 개시(開市—시장을 열어 팔고 사는 일을 시작한다는 말로서 다른 나라와의 통상을 허가하여 열어놓은 시장)를 설치하는것이 낫다고 하면서 적당한 장소로서 무산보를 들었다.

1603년 6월 10일 함경감사 한효순도 글을 올려 무산보에 개시를 설치할것을 제기하였다.*

* 《선조실록》 권163 36년 6월 을미

무산개시가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1604년 3월 15일에 비변사가 올린 글가운데 무산보에 개시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것으로 보아 그 이전 한효순이 무산개시를 제기한 1603년 6월 10일이후에 설치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로토녀진은 조선봉건왕조가 회유책으로 나을수록 한동안 복속하는척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습격과 략탈을 일삼았으며 녀진부락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다.

홀라온녀진에 대해서도 조선봉건왕조는 군사적대응책과 함께 회유책을 강구하였다.

우리 군대의 홀라온녀진에 대한 정벌이 있는 후 홀라온녀진의 추장 하즐이는 편지를 보내어 조선직첩(職牒—봉건사회에서 조정에서 발급하는 벼슬아치에 대한 임명장)을 요청하여왔다.*

* 《선조실록》 권 187 38년 5월 정해

이후에도 하즐이는 련속 사람을 보내어 직첩을 요청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론의를 거듭한 끝에 그가 직첩을 받을만 한 공을 세운것은 없지만 그들이 략치해간 우리 사람들과 변호(藩胡—오랑캐)를 돌려보내도록 할 목적밑에 허락하였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는 홀라온녀진의 추장 하즐이가 직첩을 받으려 나라의 수도에 올라오는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 나라의 수도로 올라오는 길에 나라의 실정을 렴람할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서였다.

사실 하줄이가 조선직첩을 요청한것은 그에 따르는 봉록보다도 그에 빙자하여 우리 나라의 내정을 탐지하려는데 있었던것이다.

조선봉건왕조는 직첩수여를 늦잡으면서 홀라온녀진이 잡아간 우리 사람들과 번호를 전부 송환할것을 요구하였다.

1년정도 지나 조선봉건왕조는 하줄이에게 100장의 직첩을 수여하였고 하줄이는 랍치 해간 인원송환에 적극성을 보이는척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봉건왕조는 일시적으로나마 홀라온녀진을 복속시킬수 있었다.

조선봉건왕조는 홀라온녀진을 복속시키고 앞으로의 침입, 랍탈을 막기 위해 그들이 요구하는 직첩에 따른 록봉전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선조실록》 권199 39년 5월 병자

조선봉건왕조가 이렇게 계속 양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홀라온녀진의 우리 나라 변경 침입은 그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처럼 조선봉건왕조는 군사적대응과 회유라는 두가지 대응책으로 동북방녀진인들의 배신행위를 막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가 동북변경의 안정을 위해 취하였던 진무책은 적지 않은 제한성을 내포하고있었다.

그 제한성은 우선 조선봉건왕조의 군사적대응책이 불철저성을 띠고있는데 있다. 조선봉건왕조는 로토녀진의 배반과 홀라온녀진의 침략이 가지는 위험성과 이것을 제때에 진압하지 않으면 큰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는것도 알고있었다. 그렇다면 웅당 로토녀진과 홀라온녀진에 대하여 강한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봉건통치계급내부에서조차 주장이 통일되지 못하였고 여기에 녀진인들에 대한 군사적대응책을 최종결론해야 할 국왕 선조까지 우유부단하면서 좌왕우왕하였다.

결국 녀진배신자들과 침범자들에 대한 정벌은 단호하고 철저히 하지 못하였으며 한번 위력시위를 하는데 그치고 그를 완전히 정벌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적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회유하는 방책에 매여달리다보니 녀진인들로 하여금 오히려 조선봉건왕조를 경시하는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 제한성은 또한 조선봉건왕조가 전술적으로 오유를 범한데 있다. 조선봉건왕조는 로토녀진과 홀라온녀진이 세력이 강하기때문에 진압하기 힘들다는 리유로 회유에만 매달렸다. 로토녀진에 대한 공격이 있는 이후 무산개시를 설치하였지만 로토녀진은 조선봉건왕조가 회유책으로 나올수록 순종하는것이 아니라 여전히 습격과 랍탈을 일삼았다. 그런데도 조선봉건왕조는 변방장수들에게 죽이지는 말고 쫓아내기만 하라고 지시하였다.

사실 그때 건주위녀진이 강해지면서 많은 녀진부락들이 그에 붙어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있었다. 이러한 정세변화를 보려 하지 않고 군사적대응대신 회유책만 쓰려고 하다나니 로토녀진이나 홀라온녀진에게 약점만 보였던것이다.

그러면 조선봉건왕조가 동북변경의 안정을 도모하는데서 정책상 이런 제한성을 드러내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조선봉건왕조가 16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당파싸움으로 인하여 정치

적으로 혼란상태가 계속되고 이로 말미암아 국력이 매우 약화된데 있었다.

수년간에 걸치는 전쟁으로 조선봉건왕조가 심대한 피해를 당한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는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국력을 회복하고 령토완정을 이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인민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면서 당파싸움에만 골몰하였다.

당시 인민들의 형편이 얼마나 한심하였는가 하는것은 1600년 7월 사헌부관리들의 보고에 《경상도는 7년동안 적의 침입을 받아 백성들이 근심하면서 도탄속에서 헤매고있다.》*1고 한 사실과 1602년에 《함경도는 심한 흉년이 들어 인민들이 거의 다 고장을 뜨고》*2있다고 한 사실로써도 확인할수 있다.

*1 《선조실록》 권127 33년 7월 계해

*2 《선조실록》 권145 35년 1월 신축

당시 봉건통치배들의 착취가 얼마나 심하였는가 하는것은 이 시기 인민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리고있던 사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대표적으로 1601년을 전후하여 삼남일대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농민폭동군이 활동한 사실과 제주도에서 1601년에 제주목사로 있던 성윤문의 가혹한 수탈행위를 반대하여 인민들이 투쟁에 일떠선 사실을 들수 있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력을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당파싸움만 일삼았다.

임진조국전쟁시기 당파싸움으로 전쟁행정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통치배들은 1599년에는 정권을 잡은 북인이 대북파와 소북파로 갈라지고 1602년에 정권을 쥔 소북파는 또 류당(탁소북), 남당(청소북)으로 갈라져 정권쟁탈전을 치렬하게 벌렸다.

이처럼 통치계급내부에서 격렬하게 벌어진 당파싸움은 전후 나라의 정사와 국력강화에 지장을 주게 되었으며 결국 동북방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17세기초 조선봉건왕조의 동북방진무책은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국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령토완정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도 지켜낼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로토너진과 홀라온너진의 배신과 침입략탈이 있는 때로부터 20여년이 지나 건주위너진 추장인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청)이 우리 나라를 두차례(1627년, 1636년)나 침범한것은 바로 조선봉건왕조가 동북방진무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나약성을 보인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있었다.

우리는 국력이 강해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다는 력사의 이 교훈을 한시도 잊지 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국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홀라온너진, 군사적대응